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04.14.(금) 제23-044호

◆ [Focus] 美 연방정부, 청정 차량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배출 규제 강화안 발표

◆ [What's News]

- (세계) IRA 자사주 매입 과세, 외국계 기업도 직접 영향권 전망
- (美-EU) 핵심 광물·철강 등 현안 집중 논의
- (경제무역) 중국의 3월 대외 수출 회복세 보여
- (반도체) 미국의 대만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, 사상 최대 기록
- (수입 규제)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 판정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[친환경] 美 연방정부, 청정 차량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배출 규제 강화안 발표

- 미국 환경보호청(EPA), 차량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 발표(4.12)
 -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심 투자 의제로 차량 운송의 미래가 '전기'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 내 전기차 보급 가속화 기대
 - 이번 EPA 규제안으로 2032년 신규 소형 차량 판매의 67%, 신규 중형 차량 판매의 46%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, 차량 수명이 연장되어 평균 \$12,00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
 -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강화된 신규 규제안으로 미국 연간 배출량의 두 배인 약 100억 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200억 배럴 상당의 미국의 석유 의존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
 - 아울러, 미래 청정 교통 분야의 경쟁에서 중국과 같은 경쟁자들 속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리더십 마련의 기회로 자평
 - ※ 이번 규정은 60일간 논평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후 시행

□ **환경보호청(EPA) 차량 배출가스 기준안 주요 내용**

○ **소형 및 중형 차량(승용차) 대상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**

- * Multi-Pollutant Emissions Standards for Model Years 2027 and Later Light-Duty and Medium Duty Vehicles
- 2027년~2032년식 차량 대상으로 이산화탄소, 비메탄계유기가스, 질소산화물,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6년 간 단계적으로 감축 적용
- 2032년 소형 차량의 업계 전체 평균 목표는 82g/마일 CO2로, 기존 2026년 기준에서 56% 감소
- * 2021년 347g/마일, 2026년 161g/마일, 2032년 82g/마일
- 질소산화물 및 기타 유기 가스의 경우 2032년에는 기준이 12mg/마일, 미립자 물질(그을음)은 현 기준보다 92% 감소 권고
- 중형 차량의 경우, 2032년까지 평균 275g/마일의 CO2 배출량 목표 제안, 이는 2026년 기준에서 44% 감소

○ **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및 품질보증기준 강화**

- 전기차(BEV)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(PHEV) 배터리는 5년 또는 62,000마일에서 원래 성능의 80% 이상, 8년 또는 100,000마일에서 70% 이상 성능 유지 조건을 명시

<BEV 및 PHEV 배터리 최소성능기준표>

Table 64. Proposed 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

Years or mileage	Light-duty BEVs and PHEVs	Class 2b and 3 BEVs and PHEVs
5 years or 62,000 miles	80 percent SOCE	N/A
8 years or 100,000 miles	70 percent SOCE	N/A

[자료: EPA 소형 및 중형 차량 제안 표준]

○ **대형 화물 트럭 대상 배출가스 기준안**

- * Greenhouse Gas Standards for Heavy-Duty Vehicles - Phase 3
- 대형 운송차량(다목적 운송트럭, 대중교통, 학교버스) 및 일반 화물 운반용 트럭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안 강화
- * 쓰레기 수거차량, 학교 버스 등 직업용 차량의 50%, 화물트랙터 및 트레일러 25% 전기차 전환 예상
- ** 2055년 까지 18억톤 CO2 배출 감소 효과 예상

- 소형 및 중형 차량 제안 표준안과 유사하게 최소성능기반 표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차량 구성을 기반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
- 무공해 트럭의 배터리에 대한 보증 요구 사항도 강화되었으며 소비자에게 배터리 상태(state of health)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공 의무 명시

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○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의 정책 중 가장 급진적인 기후 규제 목표라고 평가, 제안된 기준 충족을 위한 여러 선결 과제 지적

- 뉴욕타임스는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5.8%, 2021년은 3.2% 수준인데 반해 이번에 제시된 규제안은 상당히 급진적(현 판매율의 10배 이상)으로 목표*가 제시되었다고 지적

* 신차 판매 중 승용세단 78%, 픽업트럭 68%, 크로스오버·SUV 62%를 전기차로 목표(~'32년)

-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 마련, 합리적인 차량 가격 책정 등 여러 과제가 선결 과제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

※(참고) IRA 세액공제 적격 차종 설문조사 (폴리티코, 4.12)
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91개 전기 자동차 중 현재 5개 차종만이 IRA의 전체 세액공제(\$7,500)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모델은 제너럴모터스(GM), 포드, 테슬라로 모두 미국 자동차 회사 차종
 ⇨ 그 밖에 차종은 전체 보조금 수혜가 어려워 가격 책정 부담으로 작용 전망

○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부족 사태 이후 반도체·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원활한 원자재 확보 문제와 더불어 기술혁신 필요성도 지적

-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4대 요소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) 모두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
- 최근 EV 경쟁심화에 따른 차량 가격의 하락이 제조업체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고, 주요 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'그린플레이션'으로 배터리 비용은 전년 대비 6% 증가했다고 분석
- 신소재 개발 및 신규 배터리 설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 소비 체계 마련과 경량화를 위한 기술 혁신이 보급 가속화에 필수

○ 환경 단체는 대체적으로 환영, 공화당에선 반대 목소리도

- 세계 자원 연구소(World Resources Institute) 덴 라쇼프(Dan Lashof)는 성명에서 EPA의 제안이 “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전의 어떤 규제보다 더 빠르게 모든 전기 자동차 산업을 향한 속도를 높일 것” 환영
- 미국의 생물다양성센터 덴 배커(Dan Becker)는 “제조업체가 달성하지 못한다는 태도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방해가 될 수 있다”며 2032년보다 2년 빠른 2030년 EV 67% 달성을 목표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
- 공화당 존 바라소(John Barrasso) 상원 의원은 “모든 것의 전기화가 기후 위기 해결책은 아니다”라며 “이런 규제로 소비자는 인상된 가격과 줄어든 선택지를 맞이하게 된다” 지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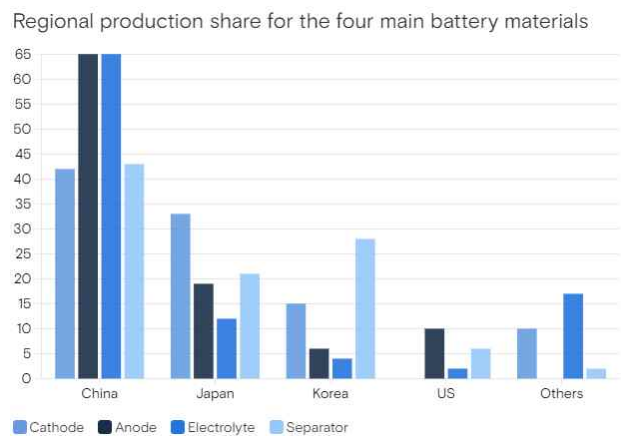
※ 참고 자료

<미국 차량 제조사별 EV 전환 목표 및 판매실적>

Automaker	2030 EV %	2022 overall sales (rounded)	2030 EV sales (est.)
GM	40-50%	2.2m	880k-1.1m
Toyota	<50% (or 15%?), “1/3 (global)	2m	<1m (300k?)
Ford	40-50%	1.8m	720-900k
Stellantis	40-50%	1.5m	600-750k
Honda	40-50%	975k	390-487k
Nissan	40% “electrified”	815k	326k
Hyundai	50%	724k	362k
Kia	37% (global)	654k	241k
Subtotal of non-EV manufacturers	(44%, averaged/weighted)	12.8m	~5.7m (midpoint)
EV brands (Tesla, Rivian, Polestar, Lucid, etc)	100%	~550k	the rest
US total	54-60%	13.7m	7.4-8.2 million

[자료: Electrek 보도]

<배터리 4대 핵심 요소의 공급망 현황>



* 배터리 4대 핵심 요소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) 모두 중국에 높은 의존도를 보임.

[자료: 美 상무부, 골드만삭스 인용]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- 자료원 | 백악관(4.12), 환경보호청(4.12), 폴리τικο(4.12), 골드만삭스(2월), Electrek(4.9) 등

□ (세제) IRA 자사주 매입 과세, 외국계 기업도 직접 영향권 전망

- (개요)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으로 신설된 자사주 매입(stock buyback) 과세 제도가 외국계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 제기
 - 현재 재무부가 최종 지침을 수립 중이며, 결과 따라 미국 내 외국계 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바, 우리 진출 기업의 관심 요망
- (상세) 재무부 잠정 지침 공개(22.12.27) 후 외국계 기업 사이 우려 고조
 - 작년 8월 제정된 IRA에는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, 매입 금액에 1%에 해당하는 특별 소비세(excise tax)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올해 1월부터 발효
 - 당초 IRA 입법 시 다수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 세금이 외국계 기업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,
 - 지난 12월 공개된 재무부 잠정 지침에 따르면, 해외 모기업을 둔 미국 자회사(subsidiary)도 폭넓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
 - 즉, 미국 자회사가 해외 모기업에 일상적인 사업 거래 대금을 지급(특히 사용료 및 재고 구매 등)하고, 해당 거래 발생 후 2년 이내 해외 모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, 국세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해석
- (반응) 국내 외국인 투자 위축 및 美 다국적 기업에 유사 피해 발생 전망
 - 덴마크계 다국적 제약사 Novo Nordisk는 외국계 기업의 일상적인 거래를 조세 회피 목적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
 - Global Business Alliance는 미국이 국내 세제를 외국에 강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수요 감소,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해외 불이익* 발생 우려

* 캐나다 정부도 2024년부터 자사주 매입에 2% 특별세 부과 예정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월스트리트저널(4.14), 미국 재무부(2022.12.27)

□ [美-EU] 핵심 광물 · 철강 등 현안 집중 논의

- (개요)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(USTR)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유럽 연합(EU) 수석부집행위원장(통상담당)의 워싱턴 회동(4.13)에 언론 주목
 - 양측 현안인 (1) 핵심 광물 협정, (2)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(GASSA), (3) 미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등 논의

○ 주제별 양측 발언 요약

(1) 미-EU 핵심 광물 협정

- 돔브로브스키는 “IRA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”라고 밝힘.
- 타이는 “핵심 광물 협정을 매우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으며, 청정 제품이 누구로부터, 어떻게 생산돼야 하는지까지 검토를 확대 중”이라고 발언

(2)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 합의(GASSA)

- 양측은 GASSA 협상과 관련해 세부 내용 공개를 자제하며, 10월까지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양측이 밀도 있는 대화 중이라고 밝힘.
- 한편, 12일 열린 별도 행사에서 돔브로브스키는 “GASSA 협상에서 EU는 (1) 232조 관세 완전 종결을 전제로, (2) WTO 규정을 준수하고, (3) EU 친환경 정책과 조율된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”라고 강조

(3) 미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

- 돔브로브스키는 TTC를 통해 ‘무역’ 부문에서 더 큰 진전을 기대한다며, 디지털 수단을 통한 무역 촉진, 범대서양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부적인 주제와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.
- 타이는 5월 말 스웨덴에서 열리는 TTC 장관급 회의에서 “친환경 기술에 공통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무역 장벽 완화를 기대한다”라고 발언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▪ 자료원	인사이드트레이드(4.14), AEI(4.12)

□ (경제무역) 중국의 3월 대외 수출 회복세 보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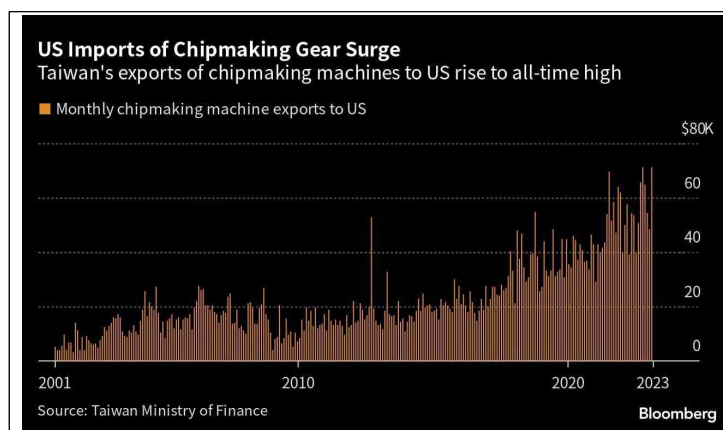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중국의 3월 수출, 예측을 뒤집고 전년 대비 14.8% 증가
 - 경제학자들은 전년 대비 7.0% 감소*를 예상했으나, 직전 5개월 간의 감소세를 끊고 반등
 - * 로이터 통신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
 - 단,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조업 재개로 깜짝 반등한 것으로 진단,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
- (상세) 중국의 '23.3월 수입 감소 폭도 작아지는 등 무역 호조
 - 3월 수입은 전년 대비 $\Delta 1.4\%$, $\Delta 10\%$ 대였던 직전 2개월보다 호조
 - * 원유, 철광석, 대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구리 수입이 감소를 기록
 - 한국($\Delta 13.6\%$), 베트남($\Delta 14.8\%$) 등 타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, 중국 당국은 이번 수출 강세가 전기차, 태양광 제품, 리튬 배터리 수출 호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밝힘
- (전망) 그러나 수출 호조의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
 - 중국 당국도 외부 수요침체, 지정학적 요소 등 외부 환경이 중국 무역에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밝힌 가운데,
 - 선진국들의 경기가 하방 국면에 진입하고,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지수(PMI)도 2월 대비 1.6포인트 하락(50.0)하는 등 비관적 전망 우세
- (비고) 리창 신임 총리, 중국 대외무역 확대 위한 총력전 추진
 - 선진국과의 무역 확대 외에 동남아 등 신흥 시장개척을 적극 주문
 - 중국은 올해 GDP 성장 목표를 5%로 제시(작년 3% 성장)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■ 자료원	로이터(4.13)

□ (반도체) 미국의 대만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, 사상 최대 기록

- (개요) 지난 3월, 미국의 대만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
 - 전년 대비 42.6% 증가한 미화 7,130만 달러를 기록
 - 대조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33.7% 감소, 9개월 연속 감소세
- (상세)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의 영향으로 보여
 -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위상에 비해 중국 등 외부 위협에 취약하다고 평가되는바, 미국은 첨단반도체 제조 능력 "자국화"에 집중
 - * 이에 대만 TSMC, 애리조나에 반도체 제조시설 2개소 건설 진행 중
 - 대만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감소는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
- (비고) 최근 일본은 3월 말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를 강화(3.31)
 - 노광장치, 세정·검사 장치 등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23가지를 수출통제 범위에 추가
 - 위 품목들은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 필요
 - * 단, 미국 한국 대만 등 42개 국가 지역은 개별 허가 면제

< 참고. 대만의 對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동향 >



[자료] Bloomberg(Taiwan Ministry of Finance)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|
| ■ 자료원 | 블룸버그(4.13), The Edge Markets(4.13) 등 |

□ (수입규제)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 판정

- (개요)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덤핑 예비판정 2건 발표 (4.12 관보 게재)
 -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(1) 스탠다드 강관과 (2) 연벽사각파이프가 한국산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
 - 해당 2건 우회덤핑 조사는 '22.8.4에 별도 개시됐으며, 예비 판정 발표 후 150일 안에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법률로 규정

- 세부 판정 내용
 - (1) 스탠다드 강관 (Circular Welded Non-Alloy Steel Pipes)
 -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탠다드 강관 제품이 한국산 열연 강재 (hot-rolled steel)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우회 수출됐다고 예비 판정
 - 의무 조사 대상은 SeAH Steel VINA Corporation (SeAH VINA)과 Vietnam Haiphong Hongyuan Machinery Manufacturing Co., Ltd. (Vietnam Haiphong) 이상 2개 기업

 - (2) 연벽사각파이프 (Light-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)
 -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연벽사각파이프 제품에 한국산 열연 강재가 사용되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됐다고 예비 판정
 - 의무 조사 대상은 Hoa Phat Steel Pipe Company Ltd. (Hoa Phat) and Vina One Steel Manufacturing Corporation (Vina One) 이상 2개 기업
 - 조사 대상 기업인 Hoa Phat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상무부는 '불리한 가용정보'(Adverse Facts Available) 적용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연방관보(4.12) (4.12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Big Lenders Are Thriving Despite Banking Turmoil (대형 은행, 금융 사태에도 불구하고 “번창 중”)</p> <p>금융 업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JP모건 체이스는 1분기 순익이 52% 증가하는 등 기록적 매출을 거뒀. 씨티그룹과 웰스파코의 매출도 증가.</p>
The Washington Post	<p>The most frustrating part of owning an electric car threatens the EV revolution (전기차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)</p> <p>전기차 판매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 문제 제기 목소리 높아져. 공공 충전기의 상당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.</p>
New York Times	<p>Unemployment Is Low. Inflation Is Falling. What Comes Next? (낮은 실업률, 진정되는 인플레이션. 그 다음은?)</p> <p>경기 호전 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침체가 오거나 혹은 연준에 의해 유발될 것이라 생각. 연준이 언제까지 개입해야할지 엇갈린 전문가들의 시선.</p>
CNN	<p>Hear why Yellen thinks a ‘soft landing’ for US economy is possible (엘런, 미국 경제의 연착륙은 가능)</p> <p>재닛 엘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인플레이션 진정이 가능하다고 인터뷰. 공급망 이슈 등 비시장적 요소들이 해결됨에 따라 진정될 것.</p>

* 미국 동부시간 4월 14일 16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**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2	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	2023.04월
US23-11	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	2023.03월
US23-10	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3월
US23-09	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	2023.03월
US23-08	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	2023.03월
US23-07	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	2023.03월
US23-06	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	2023.03월
US23-05	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	2023.02월

◆ **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**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0 (2023.4월 중)		업로드 예정
코인시-9 (2023.3.15)		